

# 주간 노동N이슈

제25호 | 2018.10.29.(월)

## 독자 초청 품평회 시상중계 '노동N이슈' 를 말한다

구은희연구원(tokki79@inochong.org)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노총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노동N이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을 찾아 뵈는 지 오늘로 218일이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동N이슈>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개원 이해 처음 시도한 주간 단위 이슈페이퍼입니다. 중앙연구원이 내놓는 산물치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전적으로 편집자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N이슈>는 독자 여러분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중앙연구원 차원의 고민이 담긴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앙연구원이 생산하는 연구보고서가 보통의 노동자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노동자들과의 거리 좁히기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으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엄중한 과제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노동N이슈>가 탄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에 가장 주요한 노동현안을, 쉬운 글로 설명한다는 콘셉트를 잡고 새로운 실험에 나섰습니다. 주요 독자층은 노동조합 초급간부에 맞췄습니다. 지난 3월26일 발행준비1호를 시작으로 10월22일 발행된 24호까지, 매주 월요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약속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동정책 해설이, 하반기에는 현장성 강한 원고가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어떤 형식의 글이 독자 여러분들께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여질지 고민 중입니다. 형식적 실험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고민도 큼니다. 올해 연말만 해도 사회적 대화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의 힘겨루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합니다. 안정적인 노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타임오프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노동N이슈>는 복잡한 노동현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노동자의 언어로 설명하는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주 <노동N이슈>는 5명의 독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동운동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가 돼 달라” 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N이슈>의 발전은 편집자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어떤 의견도 환영합니다. 전화(02-6277-0164)와 이메일(tokki79@inochong.org)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2018년 10월29일

노동N이슈



## 독자 초청 품평회 지상중계

# 주간 노동N이슈를 말한다.

▲ <주간 노동N이슈>가 독자화 만났다.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실장, 유병홍 고려대 노사관계연구센터 연구교수,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이날 토론회에 동참한 이은영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신문기사 미감을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3월 처음 선보인 <주간 노동 N이슈>가 지난 15일 기준 총권 26호를 발행하며 독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발행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중간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중간평가 토론회에는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 △유병홍 고려대 노사관계 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은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실장이 참석했다. <노동N이슈>를 제작하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소속 구은희 연구원이 사회를 맡았다.

**사회자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행하는 <노동N이슈>에 대한 중간평가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작에 앞서 <노동N이슈> 발행취지를 말씀 드리겠다. 중앙연구원에서 주간 단위로 이슈페이퍼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일반 조

합원이나 노조 초급간부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에 기반해 새로운 사업을 세팅했다. 다소 부담 없이, 그러나 정기적으로 노동현안을 해설해주는 소식지를 고민했다. 타깃 독자층은 노조 초급간부에 맞췄다. 3월26일 발행준비1호를 시작으로, 10월15일 ‘옥시 정리하고 1년의 기록’ 까지 총 26회 발행됐다. 그럼 총평부터 들어보겠다.

### “기사체 형식 원고, ‘쉬운 글’ 콘셉트에 부합”

**박덕수 :** 노조 초급간부에 초점을 맞췄다는데, 제가 바로 당사자다. 그동안 중앙연구원이 훌륭한 연구성과물을 많이 발표했는데, 솔직히 그 내용을 온전히 소화하기 벅찼다. 그와 별개로 각종 매체에서 매일 노동 관련 소식이 쏟아지지만, 노조업무에 쫓기다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웠다.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쉽게 풀어주는 <노동N이슈> 방식이 도움이 된다.

**위성수** : 대부분 원고가 기사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타깃 독자들이 노조 초급간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선택이다.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이 <노동N이슈>의 장점이다. 각각의 원고에서 한국노총의 활동방향을 일정 부분 제시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지현** : 현재 <노동N이슈>가 생산하는 심층기사 형식의 원고는 사실 교육선전실에서 생산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교선실 인력구조상 단신이나 성명서·보도자료를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중앙연구원에서 교선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은영** : 언론도 각종 사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 때문이다. 노동문제를 쉽게 해설하는 <노동N이슈>의 접근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원고가 작성된 점도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하다.

**유병홍** : 처음 이메일로 <노동N이슈>를 받아보고 ‘이게 뭘까?’ 했는데, 매주 오더라. 정말 필요한 매체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언론과 견주어 보면 일간지는 속보성은 뛰어나지만 심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월간지는 심층적이긴 하나 시의성이 떨어진다. <노동N이슈>가 그 틈새를 잘 공략했다. 노조 초급간부를 주요 독자층으로 설정한 것도 좋은 접근이다. 그동안 이들을 위한 교양지가 없었다.

**사회자** : 사전에 ‘최고의 원고’와 ‘최악의 원고’를 뽑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고에 등수를 매겨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어떤 식의 접근방법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지 궁금

하다.

### “청소부 서씨 원고, 가독성·정보전달·운동성 두루 갖췄다”

**박덕수** : 지금까지 발행된 원고를 전부 읽지는 못했다. 이게 노조 초급간부의 현실이다. 어떤 땐 제목만 보고, 평소 관심이 있는 내용이 나오면 끝까지 읽는 식이다. 기억에 남는 원고는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이른바 공무직제 신설을 통한 처우 개선’ (11호)과 ‘청소부 서씨 이야기-노동자 설 권리에 대하여’ (20호) 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고민하던 시점에 공무직 원고가 나와서 관심 있게 봤다. 청소부 서씨 원고는 일단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았고, 주변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위성수** : 저도 잘 된 원고를 꼽으라면 청소부 서씨 원고를 고르겠다. 가독성과 정보전달, 운동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감을 갖췄다. 정책이슈라는 게 어떤 형태로 풀어내든 딱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터의 문제로부터 접근해 법·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뒤 노동운동의 대응방향까지 제시했다. 기사체 형식의 리포트가 가진 장점이다.

**이지현** : <노동N이슈> 원고를 받아 한국노총 공식 뉴스페이지 ‘노동과 희망’에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밴드 같은 SNS에 공유하고 있다. 청소부 서씨 원고는 실제로도 인기가 가장 많았다.

앞서 언급했지만 공무직 관련 원고 반응도 좋았다.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다는 뜻이다. 다만 공무직 원고의 경우 형식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연구보고서를 축약했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읽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발행준비1·2호에서 다룬 한국노총 조합원 의식조사 관련 내용도 기억에 남는다. 중앙연구원 연구과제를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사전에 소개한 내용이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랬더라면 해당 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노동N이슈>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소개됐다.

#### “연구보고서 소개할 때도 ‘가독성’ 고려해야”

**이은영 :**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은?’ (3호)에서는 최신의 트렌드를 다룬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아쉬운 건 형식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나열하는 방식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 <노동N이슈>가 노조 초급 간부를 겨냥한다면 중앙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소개할 때에도 형식적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

**유병홍 :** 특정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담당 연구원 1명이 아이템 선정부터 자료수집·취재·원고작성·편집까지 책임지는 구조라고 알고 있다. 누가 봐도 너무 벅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원고 얘기로 돌아가면, ‘삼성 무노조 신화의 균열, 한국노총의 선택은?’ (4호)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당신의 월급봉투를 노린다’ (9호)의 접근방식이 좋았다. 삼성 원고의 경우 제목과 내용에서 한국노총의 활동방향이 제시됐는데 매체의 취지와 잘 맞았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 원고도 제목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 점이 돋보인다.

반면 고개가 가우푹해지는 원고도 있다. ‘자동차부품 만들던 썬코어 노동자들이 세일즈맨이 된 까닭은?’ (2호)과 ‘백승화 안랩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23호)가 그렇다. 언론의 스케치기사와 차별성이 없다. 한국노총의 입장이나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200만 조직화 현장을 가다’ 를 주제로 포스코(14호)·학교법인한국폴리텍(15호)·강원도교육청노조(19호)·공공산업희망노조(22호) 사례를 다룬 연재물도 아쉬운 점이 있다. 연재를 시작하기 전 총론적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조직화사업을 개괄적으로 짚어준 뒤 개별 사업장 사례를 다뤘다면, 기획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됐을 것이다.

**이은영 :** 제 의견도 비슷하다. 조직화 관련 원고의 경우 한국노총 기관지 등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다. 현장스케치 원고는 해당 본부에서 커버하고, 중앙연구원에서는 조직화 과정에서 노조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짚어주거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10호에서부터 매체 표지에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노총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설명이 붙기 시작했다. 이미 독자들은 이 글이 한국노총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굳이 이런 설명을 통해 연구원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

#### “200만 조직화 시리즈, 통합적 구성력 부족했다”

**위성수 :** 같은 생각이다.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표현이 매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한국노총 내부의 검토과정이 없

어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 한국노총 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라면, 개인의 견해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내부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은 원고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가령 9호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관련 원고에서는 산별노조 법제화나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회의소 설치 같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20호 청소부 서씨 원고에도 이어져 산업별·업종별 노조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산업희망노조, 노알못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인큐베이터’ (22호) 원고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노골적으로 기업별노조 조직화 방식에 힘을 실었다. 공공산업희망노조라는 특정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원고의 논조만 보면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배치된다.

**박덕수** : 공공산업희망노조 원고를 보면서 같은 고민을 했다. 다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노동N이슈>가 논쟁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역별·업종별 노조운동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진행했는데, 또 현실에서는 공공산업희망노조 같은 접근이 존재한다. 이런 대목에서 <노동N이슈>가 논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은영** : 같은 맥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 노동계는 그동안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실에선 자회사 전환이 압도적이다. 이런 간극에 대해 <노동N이슈>가 논쟁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 “1인 제작시스템의 한계 보완 필요 … ‘연구원 개인의견’ 취급 부적절”

**위성수** : 운동의 방향성과 현실적 선택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충돌지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전달한 뒤, 이를 전제로 논쟁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공공산업희망노조 원고는 운동의 방향성은 빼놓은 채, 마치 해당 사례가 최고의 선택지인 것처럼 서술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자** : 그간 발행된 원고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주셨다. 지금부터는 향후 <노동N이슈>가 다뤘으면 하는 의제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한다.

**박덕수** : 청소부 서씨 원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노동N이슈>가 학술적 느낌보다는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는 데 무게를 뒀으면 한다.

더불어 지금도 중앙연구원이 의미 있는 연구작업들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로 완성돼 발행될 시점에는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노동N이슈>에서 중앙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 내용을 미리미리 선보이면 어떨까. 연구에 착수할 때 중앙연구원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강조하되, 가독성을 살린 형태로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위성수** :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독성이다. 연구보고서가 가독성에 초점을 둔 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읽기가 힘들다. 그 점을 항상 유념했으면 좋겠다.

향후 의제와 관련해서는 <노동N이슈>가 초반에 집중했던 포괄임금제나 탄력적근로시간제·최저임금 같은 사안의 후속 리포트가 나왔으면 한다. 각각의 제도들이 실제 어떻게 변했는지, 노동자들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글이 필요하다.

**이지현** : <노동N이슈> 의제 선정을 위한 별도의 편집회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1명이 작업하는 현실에서 업무 하중만 높아진다. 아이디어 취합이 목적이라면 단체대화방 같은 걸 만들어서 의견을 구하는 정도면 적당하다.

향후 의제와 관련해 의견을 낸다면 최근 뜨거운 감자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 주면 좋을 것 같다. 또 다음달 국제노동조합연맹(IFTU) 총회가 열리는데 국제노동계가 어떤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소개하는 쪽지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밖에 출퇴근재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정작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런 사안도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한다.

**이은영**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그동안 생존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적으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나 공유경제의 흐름은 되돌리기는 어렵다. 노동계가 이 대목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여에 대한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듣고 싶다. 한국노총 조직화와 관련해서도 조직 내 현장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나 비

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한국노총의 조직화 방향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 “연간 발행계획 세우고, 사무총국·산별·지역 참여 높여야”

**유병홍** : 향후 의제와 관련해 연간계획을 미리 세우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예를 들어 2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3월 임단투 방침, 6월 최저임금, 8월 공공부문 임금지침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1년 계획을 세우고 중간 중간 시의성 있는 사안을 배치하면 전체적인 틀 잡기가 수월할 것이다.

<노동N이슈>만을 위한 편집회의는 소모적이다. 대신 산별 연맹 현안쪽지를 신설하는 방식은 어떨까. 예를 들어 자동차노련의 근로시간특례업종 문제 같은 걸 다루되, 해당 원고를 연구원이 직접 소화해도 되고 해당 연맹에 부탁해도 된다. 1인 편집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한국노총과 산별·지역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다룬 원고가 없어서 놀랐다. 지금 노동조합에 제기되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연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위성수** : <노동N이슈>는 이미 홍보파트의 상당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입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의제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대한 사무총국이나 산별·지역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라는 식으로 연구진에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다. 차후에라도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1인 편집자 혼자 수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재 중앙연구원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노동N이슈>에 투입돼야 할지도 모른다. 선택과 집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길 기대한다.

**사회자** : 편집·배송 시스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현재는 이메일을 통해 PDF파일 형태로 전달되고 있고, 한국노총 뉴스페이지에 인터넷 판형으로 원고가 게재된다. 이 밖에 SNS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위성수** : 자동차노련이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동시에 단위사업장 대표자와 상집간부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았다. 우리 연맹 조합원이 8만명인데 그동안 홈페이지 접속자가 하루 80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조 소식을 단체문자로 보낸 뒤 접속자가 1천200명 정도로 늘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노동N이슈>도 이런 방식을 써보면 어떨까.


#### “독자층 확대 위해, ‘있는 자원’부터 활용하자”

**이지현** : 한국노총 교선실에서도 중요한 사안을 문자로 보내는데, 문자 한 번 보내는 비용만 18만원이다. <노동N이슈>의 경우 한 달에 네 번만 잡아도 1년에 문자 발송비만 864만원이다. 마케팅은 결국 돈이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어려운 문제다.

<노동N이슈>가 만들어진 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콘텐츠를 충실히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열혈지지층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박덕수**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노동OK’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이 12만명이다. 한 달 상담건수가 500건에 달한다. 여기에 <노동N이슈> 원고를 게재하는 방식은 어떤가. 요컨대 이런 식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위성수**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조합원인 연간 1천명이 넘는다고 들었다. 올해 교육은 거의 끝나가고 있을 테니, 내년 초라도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서 <노동N이슈>를 보내면 좋을 것 같다. 노조 초급간부를 겨냥한 발행취지에도 맞다.

**사회자** : 지금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중앙연구원 차원에서 고민을 다듬어서 변화를 모색하겠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노동N이슈>가 노조 초급간부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했지만, 원고를 작성하는 저 역시 노조 경험이 많지 않은 초급간부다. 비록 좌충우돌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첨부> 주간 노동N이슈 발행 현황

## 주간 노동N이슈 발행현황

- [03월26일 | 창간준비호] 한국노총 조합원 의식조사1. 정치·노사관계 분야(구은회)
- [04월02일 | 창간준비호2] 한국노총 조합원 의식조사2. 사회정책 분야(구은회)
- [04월09일 | 창간호] [인터뷰]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 성패, ‘4월 국회’에 달렸다”(구은회)
- [04월16일 | 제2호] 자동차부품 만들던 씌코어 노동자들이 ‘세일즈맨’이 된 까닭은?(구은회)
- [04월23일 | 제3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은?(황선자)
- [04월30일 | 제4호] 삼성 ‘무노조 신화’의 균열, 한국노총의 선택은?(구은회)
- [05월14일 | 제5호] 6월 지방선거 한국노총의 표심은? : 한국노총 조합원의 정치적 판단과 한국노총의 과제(박현미)
- [05월21일 | 제6호] ‘할증 없는 야근’ 부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되나(구은회)
- [05월28일 | 제7호] 정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약일까 독일까(구은회)
- [06월04일 | 제8호] 최저임금법 개정과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후퇴(구은회)
- [06월11일 | 제9호]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당신의 월급봉투를 노린다(구은회)
- [06월18일 | 제10호] 헌법재판소 ‘노조운영비 지원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파급효과(구은회)
- [06월25일 | 제11호]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이른바 ‘공무직제’ 신설을 통한 처우개선(김기우)
- [07월02일 | 제12호] 평화변영 시대 남북경협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구은회)
- [07월09일 | 제13호] 문재인 정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 [07월30일 | 제14호] [특집]포항철강노조 조직화 현장을 가다 : “포스코 나와라” 하청 노동자들의 반란 (구은회)
- [08월06일 | 제15호] [특집]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현장을 가다2. 학교법인한국폴리텍,(구은회)
- [08월20일 | 제16호] [집중분석] 국민연금 개편과 노동조합의 과제(구은회)
- [08월27일 | 제17호] 문재인 정부, 고용-소득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나?(구은회)
- [09월03일 | 제18호] ‘통계조작 논란’에 가려진 진실 혹은 거짓(구은회)
- [09월10일 | 제19호] [특집]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현장을 가다3. 강원도교육청노조(구은회)
- [09월17일 | 제20호] 청소부 서씨 이야기 : 노동자 실 권리에 대하여(구은회)
- [10월01일 | 제21호] [특별기고]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 [10월08일 | 제22호] [특집]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현장을 가다4. 공공산업희망노조(구은회)
- [10월15일 | 제23호] [인터뷰] 백승화 안랩노동조합 위원장 : “‘노조효과’ 정말 확실하네요”(구은회)
- [10월22일 | 제24호] ‘옥시’ 정리하고 1년의 기록
- [10월29일 | 제25호] 독자 초청 품평회 지상중계-‘노동N이슈’를 말한다

문의 및 각종 제안  
02) 6277-0164

메일링 등록  
tokki79@inochong.org